윤리경영 카드뉴스 재단법인 강원지역산업진흥원

AI가 틀리면 누구 책임일까?

AI가 추천했고,
사람은 그대로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AI가 일하는 시대, 사람에게 남는 책임

AI는 이미 '결정' 가까이에 있다

AI는 이제 검색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AI가 활용될 수 있는 공공 의사결정 사례

복지 대상자 선정

인허가 판단 지원

위험 예측

민원·행정업무 지원

AI는 정보를 찾는 단계를 넘어 **사람의 판단을 돕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모든 기관이 도입했다는 뜻이 아니라, AI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의 예시입니다.

그런데 AI도 틀린다

AI는 항상 공정할까?



편향된 데이터
→ 편향된 판단 가능

부정확한 정보
→ 잘못된 결과 가능

설명하기 어려운 판단
→ 신뢰 문제

AI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입력된 데이터와 설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AI 윤리기준을 만들었다

2026년 10월,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확정



68개 세부 점검항목

핵심가치를 점검표로 구체화

3단계 자율점검 체계

적용 · 응용 · 융합 단계별 점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2026.10.1.

여섯 가지를 쉽게 풀면

어려워 보이지만, 질문은 단순합니다

공공성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형평성

누구에게나
공정한가?

투명성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책임성

문제가 생기면 누가
확인하고 책임지는가?

안전성

잘못 작동해도
위험하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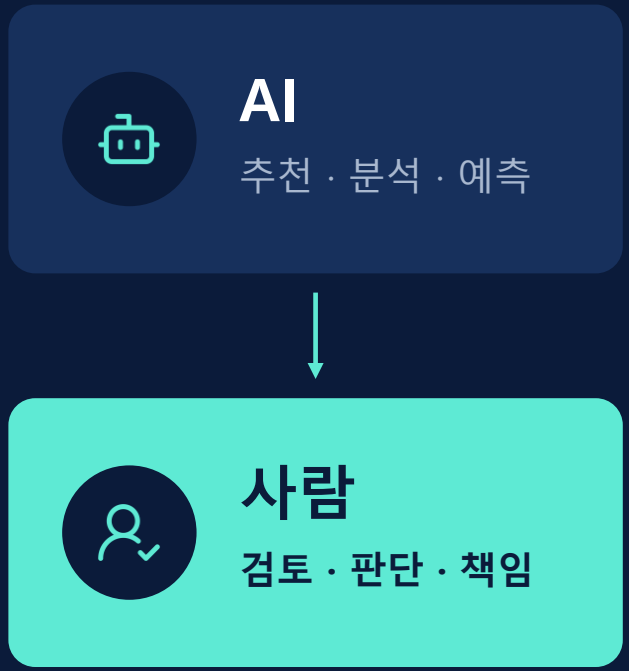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2026.10.1.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이 강조하는 핵심

AI가 판단을 도와도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일수록
사람이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2026.10.1.

그렇다면 우리는 AI를 어떻게 써야 할까?

AI를 잘 쓰는 사람의 3가지 습관



01

확인하기

AI 답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사실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02

판단하기

AI의 추천은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03

책임지기

"AI가 그렇게 답했다"는 말이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I에게 일을 맡길 수는 있어도, **책임까지 맡길 수는 없습니다.**

AI 시대의 윤리경영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사람의 판단은 더 중요해집니다

기술을 잘 사용하는 것과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술 + 판단 + 책임 =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행정안전부「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2026.10.1.)